

신라 佛塔의 형식과 금강역사 浮彫像 연구

김 지 현*

〈목 차〉

- I. 머리말
- II. 신라 佛塔의 浮彫像 출현과 전개
- III. 금강역사상이 浮彫된 신라 佛塔의 사례와 형식
- IV. 佛塔과 금강역사 浮彫像의 조형적 관계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신라 佛塔에 浮彫된 금강역사상의 彫像의 的의를 불탑의 형식과 구조적 관계 속에서 고찰해 보았다. 현존하는 불탑 부조상 중에서 금강역사상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도상이다. 634년에 조성된 분황사 석탑의 초층탑신 네 면의 감실 좌우에 2구씩 총 8구의 금강역사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탑은 벽돌 모양의 石材를 쌓아올려 조성한 造積形 석탑으로 전탑과 外形이 유사하여, 석탑이지만 전탑계열의 불탑이라 할 수 있다. 분황사 석탑은 감실과 실제 석문이 있어 도상을 부조한다면 여러 상들 중에 문지기 역할의 금강역사상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뒤 기념비적인 사찰로 조성한 분황사와 석탑 그리고 석탑의 부조상에 단순히 문지기 역할로서 금강역사상을 배치했다고 단정하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면적이다.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한 신라는 신라가 불국토라는 이미지의 부여와 함께 불교 발생지인 인도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킨다. 그 절정은 선덕여왕으로, 아버지 이름은 백정, 어머니 이름이 마야인 선덕여왕은 고타마 시타르타에 비견된다. 즉, 선덕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신라는 곧 부처의 나라가

본 논문은 필자가 동아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新羅 石塔의 構造와 造營 研究』, 2012)의 12~21쪽, 227~232쪽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강사

된다. 이런 상징성을 가진 선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기념비적으로 세운 사찰의 석탑에서 인도 스투파와의 친연성이 엿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전탑으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탑보다 공력과 경제력 소모를 요하는 조적형 석탑은 인도 스투파를 의식한 불탑으로 신라가 불국토라는 정통성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전탑 및 唐代 조각 양식이 분황사 석탑의 형식과 금강역사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인도 스투파의 상징성과 그로 인한 정통성의 강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분황사 석탑의 감실과 금강역사상은 佛舍利가 모셔진 불탑과 그 외 공간을 경계하는 스투파의 조형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나아가 분황사 석탑은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존송되던 초기 불탑의 성격을 지녔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감은사지 석탑으로 대변되는 전형양식의 일반형석탑이 새롭게 출현한다.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이 新式의 불탑이라면, 통일신라 이전의 전탑, 목탑, 조적형 석탑의 형식은 古式의 불탑이라 할 수 있다. 금강역사부조상은 신식의 불탑에 비해 고식의 불탑에서 더 많이 조성된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등장하는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전의 불탑보다 초층탑신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른 부조 공간의 협소함은 금강역사상과의 조형적 부조화를 초래한다. 또한 내부 공간의 不在에 따른 감실의 생략과 문비로의 대체는 이후 초층탑신에 문지기 역할의 금강역사상을 굳이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곧 전탑계열의 불탑에서 역사상이 조성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강역사상이 불탑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부조상임을 방증한다.

더불어 금강역사상은 9세기 전기 이후의 불탑에서는 거의 부조되지 않는 시기성과 함께 경주 일대와 전탑의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안동에서 확인되는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탑부조상으로 제작된 금강역사상이 초기 불탑의 형식에 등장하는 부조상이기 때문이다. 초기 불탑은 불교의 빠른 수용을 보였던 경주 일대라는 지역적 제한과 9세기 전기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기성과도 직결된다. 當代 유행하던 신앙 및 경전적 도상과 함께 9세기 전형양식 석탑의 전국적 확산은 금강역사상이 부조상으로 도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주제어 : 금강역사상, 부조상(浮彫像), 분황사, 선덕여왕, 불탑(佛塔), 전탑(塼塔), 석탑, 스투파, 신라, 통일신라

I. 머리말

佛塔은 부처의 眞身인 舍利를 봉안하는 건축물로, 석가 入滅 이후 無佛像時代부터 부처를 대신하여 상징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존송되어 왔다. 따라서 불교의 전래는 곧 사리와 더불어 불탑의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탑은 지역 혹은 시대마다 형태, 재질, 성격 등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조성되어 왔는데, 불탑의 표면에 새긴 부조상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불탑에서 부조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사례는 주지하다시피 634년에 조성된 경주 분황사 석탑의 초층탑신에 조각된 금강역사상이다. 7세기에 조성된 불탑의 부조상을 살펴보면 먼저 분황사 석탑과 같은 금강역사상의 부조는 분황사 동방폐탑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강역사상 이외에도 7세기 후반의 경주 석장사지 전탑에서는 전돌 표면에 탑과 불상을 번갈아가며 배열한 부조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금강역사상의 발로 추정되는 틀片和 사천왕상편 및 전불편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679년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에서는 전축기단 한 면에 6구의 신장상전을 감입하여 총 24구의 부조상을 표현하였다. 7세기 불탑의 현존 사례가 풍부하지 않아 당대 부조상의 전반적 양상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왕의 사례를 통해 목탑, 전탑, 석탑 등에 일찍부터 도상들이 부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76년 삼국의 통일과 함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석탑 형식이 등장하는데 소위 전형양식의 일반형석탑이다. 초기 일반형 석탑에는 부조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8세기 후기부터는 기존의 금강역사상을 비롯하여, 사천왕상, 십이지신장상, 팔부중상, 불·보살상, 천인상 등의 다양한 부조상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며 부조된다.

본고에서는 신라 불탑에 표현된 다양한 부조상 중에서 금강역사상에 주목하였다. 금강역사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사례는 분황사 석탑이므로 먼저 분황사 석탑의 분석을 통해 금강역사상이 부조상으로서 출현하는 배경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후 신라 불탑의 부조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토대로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신라의 불탑 사례와 형식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특징과 금강역사 부조상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본고에 서술된 시기구분은 약 25년을 단위로 하여 전기(~25), 중기(25~50), 후기(50~75), 말기(75~)로 구분하였다.

II. 신라 佛塔의 浮彫像 출현과 전개

1. 분황사 석탑과 금강역사 부조상

현존하는 불탑 중에서 부조상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사례는 신라 最古의 석탑인 분황사 모전석탑(634)이다. 이 탑은 안산암의 석재를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쌓아올린 다층의 造積型 石塔이다(도 1). 외형이 전탑과 많이 닮아 日人 학자들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 즉, ‘模博石塔’이라 불렀고 이후에도 별다른 의견 없이 분황사 석탑은 모전석탑으로 불려 왔다.²⁾ 그러나 최근에는 인도 스투파의 모전석탑과 중국 모전석탑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인도 스투파의 재료와 목탑의 다층 개념이 차입된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³⁾ 필자 역시 이와 의견을 함께 하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탑이 전래된 초기에 인도의 석재 및 造積기법이 중국식 고층누각 및 목탑과 결합하면서 신통사 사문탑과 같은 단층의 적석탑은 물론 다층의 적석탑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博문화에 익숙한 중국은 이를 다시 博材로 변화시켜 전탑이라는 불탑 형식을 창출했고, 전탑은 수·당대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탑으로 성행·발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전탑과 조적형 석탑인 적석탑(소위 모전석탑이라는 형식)이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라에 전탑 혹은 적석탑이 유입될 당시 중국에서 두 불탑의 선호의 정도가 존재했을지언정, 신라에 전탑과 적석탑이 거의 동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모전석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분황사 석탑이라 칭하도록 하겠다.⁴⁾

분황사 석탑은 현재 3층이지만 복원될 경우 7층 또는 9층의 대탑으로 추정된다.⁵⁾ 초층탑신의 四面에 감실과 석재의 문을 마련하고 상인방과 하인방,

2) 關野貞, 『慶州における新羅時代の遺跡』,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2005, 60~61쪽; 藤島亥治郎, 『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 變形三層石塔, 五層石塔及び特殊型石塔』, 『建築雜誌』 579, 1933, 1634쪽; 고유섭, 『高裕燮全集 I 韓國塔婆의 研究』, 동방문화사, 1993, 264쪽; 황수영, 『황수영전집』3, 혜안, 1998, 24쪽;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33쪽;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173쪽.

3) 전자는 박경식, 『芬皇寺模博石塔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0, 신라문화선양회, 1999, 172쪽, 후자는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博石塔說’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20,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46~49쪽.

4) 김지현, 『新羅 石塔의 構造와 造營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16쪽; 이희봉 역시 중국에서 사문탑을 아무도 모전석탑이라 호칭하지 않으므로 그 석재의 형태를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모블록탑’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희봉, 앞의 논문, 42쪽).

문설주까지 제작하였으며 문설주 좌우에 2구씩 총 8구의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였다.

금강역사는 인도 간다라미술에서 부처 在世시 부처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며 1구가 나타나지만 중국 특히 북위시대부터는 쌍의 개념으로 2구가 등장하고, 석굴에서 주실과 전실의 경계 혹은 석굴 밖, 사찰의 문, 불탑의 감실 좌우에 배치되어 사찰 수호 및 문지기의 성격으로 그 역할이 확대·변화되어 왔다.⁵⁾ 불탑에 감실을 개설할 경우 반드시 금강역사상을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부조상을 구상한다면 금강역사의 성격상 가장 적당한 조상임은 분명한 듯하다. 현재 7세기 혹은 그 이전에 제작된 중국 전탑 및 적석탑과 목탑의 경우 파손과 보수 그리고 조형의 변화 등을 거쳐 初建 당시에 금강역사상을 부조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목탑을 번안한 백제 미륵사지 석탑(639)의 초층탑신 네 면에 문을 개설하였지만 금강역사상을 배치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도 2). 그렇다면 신라 분황사 석탑에 감실의 개설과 함께 금강역사상을 부조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황사 석탑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대에 조성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634년 분황사를 ‘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634년 이전부터 분황사의 조영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⁶⁾ ‘芬皇’이라는 사찰명과 함께 사리장엄구 내에 여성의 물품인 바늘과 바늘통이 공양품으로 납입되는 사례 등을 통해 분황사는 선덕여왕의 즉위(632)를 기념하기 위해 계획·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불교는 고대 사회에 종교적인 영향을 차치하고서 정치,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면에서 높은 국가적 발전을 이룩하는 근간이 되었다. 당시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하였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교가 발생한 인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시하고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경주가 원래 불국토이며, 前佛時代부터 칠처가람이 존재했었던 곳이라는 것, 황룡사 장육존상을 조성할 당시 인도 아쇼카왕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언급하며 신라가 다시금 불국토라는 불교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 등이다.⁷⁾ 또한 법흥왕 이후 신라는 자신들이 천축의 찰리종의 왕으로 석가족과 동일시하며 東夷共工의 종족과 다름을 강조한다.⁸⁾ 분황사 석탑 내에서 발견된 사리공양품 중의

5) 문화재관리국, 『芬皇寺石塔 實測調査報告書』, 1992, 36~43쪽.

6) 임영애, 『중국 석굴의 금강역사: 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 275~303쪽.

7)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제5 善德王 3年.

8) 『三國遺事』卷3 洪範 제3 阿道基羅; 『三國遺事』卷3 塔上 제4 皇龍寺丈六.

9) 『三國遺事』卷3 塔上 제4 皇龍寺九層塔.

耳輪은 실제 인도와의 직·간접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물품이기도 하다.¹⁰⁾ 특히 선덕여왕은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즉,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과 부인의 이름이 백정과 마야로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인 태자 고타마 싯타르타 시절의 부모 이름과 동일하다. 이는 곧 선덕여왕이 석가와 비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선덕여왕은 전륜성왕이자 나아가 신라는 부처의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선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기념비적으로 세운 사찰의 불탑에, 인도 스투파에서 사용한 석재와 조적 기법을 의도적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부조된 금강역사상이 권법자세를 취하는 양식적 특징과 중국의 수·당대 전탑의 성행, 석굴의 좌우에 금강역사상의 배치되는 방식 등이 분황사 석탑 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¹¹⁾ 그러나 당시 신라의 경우 전탑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탑보다 공력과 경제력 소모를 요하는 적석탑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¹²⁾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스투파를 살펴보면 부처의 사리가 봉안된 안다 주위를 베티카가 두르고 있고, 베티카 밖으로 동서남북 네 곳에 토라나를 세웠다(도 3). 베티카는 울타리의 개념으로 베티카 안쪽의 안다 즉, 부처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를 結界하고 있다. 그리고 토라나에는 동양에서의 금강역사와 그 역할이 유사한 약사(yaksa, 藥叉·夜叉)가 조각되어 있다. 약사는 토라나 이외에도 부처 재세 시 사원의 입구를 비롯한 주요 건물의 문 양쪽에 배치된 도상이며, 보살마하살과 부처를 보호하는 모습 등이

10) 이전은 분황사 사리구 이외에도 송림사 사리장엄구 등에도 확인되는데 귀 장신구로 추정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統一新羅』, 2003, 218~219쪽). 그리고 이전이 인도의 귀걸이 형식임을 추정할 수 있는 논문은 주경미,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역사민속학』17, 역사민속학회, 2003, 31~54쪽; 上同,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미술사논단』34, 한국미술연구소, 2012, 192~194쪽 참조.

11) 금강역사상의 권법자세의 출현 시기에 관해서는 임영애, 『석굴암 금강역사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205~206쪽 참조, 금강역사상의 권법자세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소림권법과 관련짓기도 하나 화랑도 및 고대 手搏과의 관련성을 제기한 논문도 있다(장진홍, 『新羅金剛力士像에 관한 武道史的 考察』,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4~51쪽).

12) 적석탑이 전탑보다 공력과 경제성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은 고유섭, 『조선의 전탑에 대하여』,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통문관, 1993, 125~126쪽; 박경식, 앞의 논문, 171~172쪽; 현재 분황사 석탑 이전에 조성된 전탑의 실체가 없어 전탑의 존재에 대해 단언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경주 인왕동사지 발견의 紋塼과 모량리사지에서 수습된 추정 塼塔材 등으로 그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三國遺事』卷3 興法 제3 原宗興法 厭鬻減身에 기록된 경주 시내 절과 탑의 모습을 표현한 ‘寺寺星張 塔塔雁行’, 그리고 645년 황룡사 구층탑을 조성할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분황사 석탑 이전에 전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이와 관련해서는 박홍국, 앞의 책, 44~56쪽 참조).

확인된다.¹³⁾ 야차 중에서 특히 집금강야차의 역할은 항시 부처를 수호하며 함께 이동하던 금강역사(집금강신)와 동일한 모습이 포착된다.¹⁴⁾ 야차를 금강역사로 볼 수는 없지만 야차의 무리 중에서 집금강야차는 금강역사와 동일 도상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중국에서 확장된 금강역사상의 역할 즉, 문지기로서 석굴 좌우, 사찰의 입구, 나아가 불탑에도 배치되는 점은 야차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한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분황사 석탑의 네 면의 감실과 금강역사상은 인도 스투파의 토라나 그리고 약사와 닮아있어 흥미롭다. 그러나 분황사 석탑의 조형을 인도 스투파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네 면의 감실문과 좌우의 금강역사상의 부조를 통해 부처의 세계로 성역화 되는 상징적 요소임은 분명한 듯하다. 금강역사상을 통한 성역의 경계는 중국 초기 석굴과 사찰에서도 확인된다. 즉, 초기 석굴에서는 부처의 주공간인 주실과 전실의 경계에 금강역사상이 배치되며, 사찰에서도 中門에 금강역사상이 배치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역사상을 통해 부처의 중심 공간과 영역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 황룡사의 경우 中門에 금강역사상을 배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석이 확인된다(도 4). 목탑의 문 좌우에 금강역사상이 배치되었던 사실은 현재 알 수 없으나, 중금당 내에는 삼존상과 10대 제자, 사천왕상과 제석범천상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의 역사상 배치는 부처의 세계가 중문 이후부터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탑과 중금당 내에는 역사상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¹⁵⁾ 즉, 중문부터 강당까지의 영역은 연계된 하나의 공간으로

13) 『大正經』卷2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T.1451) 卷17 283a28-283b07.

“…佛言 隨意當畫 聞佛聽已 集諸彩色并喚畫工 報言 此是彩色可畫寺中 答曰 從何處作欲畫何物 報言 我亦未知 當往問佛 佛言 長者 於門兩頰應作執杖藥叉 次傍一面作大神通變 又於一面畫作五趣生死之輪 簷下畫作本生事 佛殿門傍畫持鬘藥叉 於講堂處畫老宿苾芻宣揚法要 於食堂處畫持餅藥叉 於庫門傍畫執寶藥叉 安水堂處畫龍持水瓶著妙瓔珞…”

『大正經』卷7, 『大般若波羅密多經』卷515 第三分不退相品第二十二(T.220) 0631c10-0631c15.

“…復次善現 一切不退轉菩薩摩訶薩有執金剛藥叉神王 常隨左右密爲守護 恒作是念 此菩薩摩訶薩不久當證無上菩提 願我常隨密爲守護 乃至無上正等菩提 執金剛藥叉神族常隨守護時無暫捨…”

14) 『大正經』卷2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T.1450) 卷18 192c02-192c14.

“…于時執金剛藥叉 便作是念 此提婆達多既興惡逆欲害如來 作是念已 卽往金毘羅藥叉宮 報藥叉曰 提婆達多 於鷲峰山頂造大撞車 飛大拋石欲害佛身 世尊既在汝宮安住 提婆達多正發石之時 我當以金剛杵於虛空中而摧碎之 汝應相助 恐有碎石迸著佛身 汝應覆護 金毘羅曰 善哉如是 爾時世尊從座而起 將入深山巖穴之內 于時提婆達多 與五百人發機飛石直擊如來 時執金剛神以金剛杵於虛空中打石令碎 其石一片欲墮佛身 時金毘羅藥叉接石不著 遂打自身 從斯迸落損世尊足 爾時世尊…” 이 경전의 내용에서 집금강야차와 집금강신(금강역사)은 동일 도상임을 알 수 있다.

서 부처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확장된 공간으로 사찰 자체가 곧 부처의 불국토라는 思考는 금강역사상이 南門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제작된 불탑과 금강역사 부조상이 모두 이러한 성격과 상징성을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양식적 전개가 그러하듯 금강역사 부조상 역시 처음 불탑에 조형되었던 당시의 상징성은 쇠퇴하고, 표면적이며 형식화된 부조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황사 석탑의 형식과 부조상의 양식적 특징은 중국 唐代 신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공력과 경제력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塼材 대신 石材를 사용한 것은 신라가 불국토이며 인도와의 관련성을 부여하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았다. 즉, 신라의 분황사 석탑은 불교의 정통성을 강조하되, 당시 성행하던 중국 최고의 신양식이 결합되어 구현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분황사 석탑의 형식에서의 감실과 금강역사상의 부조는 부처 세계와 속세의 경계를 구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나아가 분황사 석탑은 사리신앙의 상징적 건축물로 존송되었던 초기 불탑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불탑이라 사료된다.

2. 신라 탑부조상의 시기별 전개양상

634년 분황사 석탑에 금강역사상이 부조되고 이후 7세기에 조성된 불탑에 어떤 도상이 조각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황사 석탑과 같은 방식의 금강역사 부조상은 분황사 동방폐탑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도 5). 7세기 후반의 경주 석장사지 전탑에서는 전돌 표면에 탑과 불상을 번갈아가며 배열한 부조상이 나타나는데,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석장사지에서는 금강역사상의 발로 추정되는 부조틀片과 함께 사천왕상 부조편, 전불편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도 6·7). 679년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에서는 전축기단 한 면에 6구의 신장상전을 감입하여 총 24구의 상을 표현하였는데, 석장사지의 것과 마찬가지로 틀에 찍은 방식이다(도 8). 현재 7세기에 조성된 원형의 불탑이 남아 있지 않지만 현존하는 사례들을 통해 목탑, 전탑, 조적형 석탑의 다양한 재료로 조성된 불탑에 소조, 석조 등의 부조상이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7세기 이후의 신라 즉, 통일신라에서는 약 100년 동안 석탑에서 부조상이

15) 최근에는 사천왕상의 대좌받침을 금강역사상과 사자상의 것으로 제시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임영애, 『황룡사 중금당 불권속 16존상의 복원 : 불제자상, 금강역사상과 사자상 그리고 공양자상』, 『신라사학보』38, 2011, 신라사학회 참조).

나타나지 않다가 8세기 후기부터 다시 부조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속적으로 건립되었을 목탑과 전탑 등에 부조가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존하는 실체가 없어 논하기 힘들다.

676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새로운 형식의 석탑이 성립하게 되는데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에서 처음 나타난다(도 9). 방향의 높은 이중기단과 탑신 그리고 두터운 낙수면과 옥개받침의 옥개석으로 대표되는 전형양식의 석탑인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전형양식의 석탑이 일반적이므로 일반형 석탑이라 칭하기도 한다.¹⁶⁾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은 8세기 후기가 되면 김천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758)과 경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 장항리사지 동·서오층석탑 등에서 부조상이 나타난다. 갈항사지 석탑은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이 부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원사지 석탑은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4구, 상층기단에 십이지신장상 12구가, 장항리사지 석탑은 초층탑신에 문비와 함께 8구의 금강역사상이 조상된다.¹⁷⁾ 사천왕상은 갈항사지 석탑처럼 초층탑신에 사천왕상만 부조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원사지의 것처럼 공간을 달리하여 초층탑신은 사천왕상, 상층기단에는 십이지신장상이 부조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팔부중상도 불탑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경주 傳담엄사지 상층기단 석재편이 있다(도 10). 8세기 후기가 되면 경주 일대에서 다소의 시간차는 존재하겠지만, 부조상으로서 사천왕상, 십이지신장상, 금강역사상, 팔부중상이 등장한다. 보편적으로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은 초층탑신에, 십이지신장상과 팔부중상은 상층기단에 조각되었는데, 십이지신장상만 단독적으로 불탑에 등장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8세기 말기~9세기 전기가 되면 전라도 지역에서 새로운 도상 구성을 이룬 부조상이 출현하며,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확인된다(도 11). 초층탑신에 문비를 모각하고 네 면에 각기 금강역사상 2구, 사천왕상 2구씩 총 4구, 제·범천상 2구가 부조된다. 이전 시기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금강역사상, 사천

¹⁶⁾ 정영호는, 일반형 석탑은 方形重層의 기본형을 갖춘 석탑이라 하였으며(정영호, 『韓國石塔의 特例樣式 考察(上) : 統一新羅時代 石塔을 中心으로』, 『論文集』3, 단국대학교, 1969, 39~58쪽), 진흥섭은 전형양식의 석탑을 평면 방향을 기본으로 삼고 상하 2중기단 위에 다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것이라 정의하였다(진흥섭, 『韓國의 石造美術』, 문예출판사, 1995, 128쪽). 일반형 석탑의 대부분이 전형양식을 보여 전형석탑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전형양식의 석탑과 일반형 석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형 석탑이 전형양식의 석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이라는 다소 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¹⁷⁾ 고유섭은 초층탑신에 사천왕 내지 사보살입상의 鎚鍊製物象이 있던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서술하였다(고유섭, 앞의 책, 303쪽). 본고에서는 부조상의 전개양상을 통해 보살입상보다는 사천왕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장상이 다른 공간에 위계를 달리하듯 각기 조각되는 사례는 있어도 성격을 달리하는 도상들이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조각되는 사례는 화엄사 사사자석탑이 처음이다(이하 복합도상이라 칭함).¹⁸⁾ 이 복합도상은 이후 9세기가 되면 초층탑신에서 상층기단으로 위치를 이동하며 도상 구성에도 약간의 변화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제작된다.¹⁹⁾ 대표적으로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과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이 있다(도 12). 전자의 복합도상 구성은 제·범천상 2구, 사천왕상 2구, 천부상 2구이며, 후자의 경우는 금강역사 2구, 사천왕상 2구, 공양자상 2구인데, 모두 상층기단에 부조된다. 특히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에서 보이는 복합도상은 안동, 청송, 등지에서도 동일한 도상 구성을 사용하여 시기적·지역적 특징을 보이는 도상 구성이라 할 수 있다<표 1 참조>. 더불어 복합도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발생 지역이 수도 경주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며, 동시기 경주는 팔부중상이 매우 성행하되 복합도상은 조성되지 않아 지역적 양분화를 극명하게 보이는 흥미로운 부조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초층탑신에 불상이 조각되는 사방불상이 등장하며, 가장 이른 사례로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이 있다(도 13). 사방불은 대개 초층탑신에 조각되나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과 같이 삼층육개석 下面 네 곳에 조상되는 경우도 있다. 사방불이 등장한 이후 9세기 후기~말기 경에는 초층탑신에 보살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과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등이 있다.²⁰⁾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삼층석탑의 경우 동탑의 초층탑신에는 사방불, 서탑의 초층탑신에는 보살상을 배치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언급한 부조상들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천인상, 門扉, 眼象 등 다양한 도상과 문양들이 조화를 이루며 부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 불탑은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며 다양한 도상과 문양들로 부조되어 왔다. 불탑 부조상의 시기별 전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²¹⁾

18) 복합도상에 대해서는 지면의 부족으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19) 이러한 현상은 초층탑신에 위치한 사리공 및 사방불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문물연구』1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0, 83~112쪽).

20)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의 초층탑신 부조상은 보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장충식, 앞의 책, 194쪽; 박경식, 『KOREAN Art Book 탑과』, 예경, 2001, 162쪽). 현재 조상의 마모로 정확한 도상을 파악하기 힘들고 천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반에 공양물로 추정되는 형상과 복식 그리고 하층기단에 등장한 비천과 초층탑신의 상징성 등을 통해 본고에서도 보살상(공양보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1>을 토대로 불탑에 부조되는 도상의 출현 시기와 전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7세기는 금강역사상과 신장상, 8세기 금강역사상, 신장상 그리고 새롭 게 사천왕상(십이지신장상), 팔부중상,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금강역사상, 사 천왕상, 팔부중상 그리고 새로운 복합도상(천인), 사방불, 9세기 말기 이후는 사 천왕상, 팔부중상, 복합도상, 사방불상 그리고 보살상으로 요약된다.²¹⁾

표 1. 신라 불탑의 부조상의 시기별 전개양상

연번	탑 명 칭	시기	금강역사		사천왕상		십이지상		팔부중상		복합도상		불보살상		기타 도상		원 소 제 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1	분황사 석탑	634		●													경북 경주
2	사천왕사지 신장상전편	679														●	경북 경주
3	석정사지 전편	7C	●		●												경북 경주
4	傳분황사 등방패탑지	7C		●													경북 경주
5	갈항사지 동서탑	758				●											경북 김천
6	원원사지 동서탑	8C				●	●										경북 경주
7	장항리사지 동서탑	8C		●												●	경북 경주
8	傳담엄사지 석탑제	8C							●								경북 경주
9	신세동 칠층전탑	8C													●		경북 안동
10	창림사지 석탑	8C							●							●	경북 경주
11	경주박물관 석탑제1	8C				●											경북 경주
12	천관사지 석탑제	8C							●								경북 경주
13	황룡사지 서편석제	8C				●											경북 경주
14	傳인용사지 석탑제	8C末 9C前							●							●	경북 경주
15	남산동 서석탑	8C末 9C前							●								경북 경주
16	만호봉사지 석탑제	8C末 9C前		●													경북 경주
17	간월사지 남북탑	8C末 9C前		●												●	울산
18	회암사 사사자탑	8C末 9C前									●			●	●		전남 구례
19	조탑동 전탑	8C末 9C前		●													경북 안동
20	동부동 전탑	8C末 9C前		●													경북 안동
21	진전사지 석탑	8C末 9C前							●					●	●		강원 양양

21) 갈항사지 석탑과 같이 조영 당시 二塔으로 조성된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였다.
 22) 십이지신장상과 천인상은 처음 부조될 당시 독자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들을 () 속에 표현한 이유는 처음 등장할 때 각각 사천왕상 및 복합도상과 공간을 달리하여 조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탑부조상의 전개양상 속에서 다른 도상과 함께 부조되기도 한다.

연번	탑 명 칭	시기	금강역사		사천왕상		심이지상		팔부중상		복합도상		불보살상		기타 도상		원 소 제 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22	傳영경사지 석탑	9C		●													경북 경주
23	중앙박물관 석탑재	9C							●								경북 경주
24	송복사지 동서석탑	9C							●							●	경북 경주
25	승소곡사지 석탑	9C			●										●	●	경북 경주
26	화엄사 서오층탑	9C			●	●			●								전남 구례
27	화전동 석탑	9C			●	●			●								경북 영양
28	한일동 석탑	9C			●	●			●								경북 영양
29	운문사 동서석탑	9C							●								경북 청도
30	백장암 삼층석탑	9C							●?		●					●	전북 남원
31	창림사지 서편탑재	855							●								경북 경주
32	피막곡 폐사지	9C			●												경북 경주
33	사제사지 석탑재	9C							●								경북 경주
34	관덕동 석탑	9C									●		●	●			경북 의성
35	임허동 십이지탑	9C									●						경북 안동
36	금소동 석탑재	9C									●						경북 안동
37	안동대박물관 석탑재	9C									●						경북 안동
38	대전사 석탑재	9C									●						경북 청송
39	용화사 석탑재	9C									●						경북 상주
40	중촌리 석탑재	9C									●						경북 상주
41	중흥산성 석탑	9C									●		●				전남 광양
42	선림원지 석탑	9C							●								강원 양양
43	중금리사지 동서탑	9C							●								강원 황성
44	무전사지 석탑재	9C									●		●				강원 강릉
45	일산동 석탑재	9C									●		●				강원 원주
46	대안리사지 석탑재	9C							●				●				강원 원주
47	법학리 석탑	9C							●				●				강원 춘천
48	경찰서 내 석탑재	9C											●				경북 경주

연번	탑명칭	시기	금강역사		사천왕상		십이지상		팔부중상		복합도상		불보살상		기타 도상		원소재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49	동분동 석탑	9C末 10C前			●												경북 예천
50	부흥사지 석탑재	9C末 10C前									●						강원 원주
51	신월동 석탑	9C末 10C前							●							●	경북 영천
52	수도암 동탑	9C末											●		●		경북 김천
	수도암 서탑	10C前											●				
53	만불사 석탑재	9C末 10C前											●				경북 영천
54	치선동 석탑	9C末 10C前															경북 의성
55	탑동 석탑	9C末 10C前											●		●		충북 청주
56	지평리 석탑	9C末 10C前											●				경북 의성
57	금둔사지 석탑	9C末 10C前									●					●	전남 순천
58	경주동국대 석탑재	9C末 10C前											●				경북 경주
59	경주박물관 석탑재	9C末 10C前											●				경북 경주
60	장연사지 석탑	9C末 10C前									●					●	강원 고성

III. 금강역사상이 浮彫된 신라 佛塔의 사례와 형식

앞 장에서 살펴본 신라 불탑 부조상의 전개양상 속에서 금강역사상은 여러 종류의 탑부조상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상으로, 7세기 중기부터 9세기 전까지 조상된다. <표 1>에 따르면 634년에 조성된 분황사 석탑에 부조된 이후 신라의 佛塔에서 약 11건 정도 확인된다.²³⁾ 전술하였듯이 분황사 석탑은 조적형 석탑으로 초층탑신 네 면에 감실을 개설하고 금강역사상을 좌우에 2구씩 총 8구를 조상하였다(도 1 참조). 금강역사상과 감실의 문 그리고 문에 따른 부수적 부재는 화강암으로 석탑의 재료인 안산암과는 차이를 보인다. 금강역사상은 나신에 'X' 자형으로 교차되는 천의와 긴 균의를 착의하였다. 낮게 올린 상투 머리에는 꽃으로 장식된 화관을 착용하고 손 모양은 지물 없이 권법 자세를 취하고 있다.²⁴⁾

23) 복합도상에 등장하는 금강역사상의 사례까지 포함한 수이다.

24) 금강역사상에 대한 양식적 특징은 문명대, 『한국탑부조상의 고찰(1)』, 『佛敎美術』,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9, 46~99쪽(『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189~229쪽에서 재수록);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7~82쪽; 김지현, 『경주 장항리사지 오층석탑의 浮彫像 고찰』, 『동악미술사학』12, 동악미술사학회, 2011, 15~22쪽; 이광현, 『통

분황사 석탑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 사례는 분황사 동방폐탑지에서도 확인되는데, 금강역사상의 양식을 통해 7세기 후기~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5 참조).²⁵⁷ 현재 폐탑지에는 일부 안삼암 석재片和 감석 및 옥개석 등의 석재, 그리고 탑에 부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역사상 4구가 남아 있다.²⁶⁷ 1933년에 간행된 『東京通志』 권7 佛宇條에 기록된 동방폐탑지는 도괴된 古塔이 있으며, 돌이 쌓여있고 금강역사가 조각된 상과 石屏 8개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²⁷⁷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금강역사상 2구는 1915년에 이곳에서 이관해 온 것이다.²⁸⁷ 이를 통해 동방폐탑지에는 최소 6구의 금강역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경통지』의 기록을 참조한다면 동방폐탑지의 금강역사상은 8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역사상과 함께 기록된 石屏은 감실에 있었던 문과 관련된 부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탑지에 남아 있는 4구와 옮겨진 2구의 역사상 이외의 2구에 대한 행방은 현재 알 수 없다.

이후 금강역사상은 약 100년 동안 석탑에 浮彫되지 않다가 8세기 후기의 경주 장항리사지 동·서오층석탑에서 다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도 14). 장항리사지 석탑은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으로 분황사 석탑의 조적형 석탑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장항리사지 석탑은 초층탑신 각 면에 2개의 손잡이를 가진 문비를 각각 모각하고 문비 좌우에 2구씩 총 8구의 금강역사상을 배치하고 있다. 석탑과 부조상의 재료는 다르지 않고 탑신석과 彫像을 一石으로 제작

일신라 금강역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9~80쪽 등을 참조하였으나, 본고에서 서술한 양식적 전개를 통한 시기 비정은 김지현의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²⁵⁷ 이 폐탑지에서 확인되는 금강역사상의 제작시기의 경우 장충식은 분황사 금강역사상(634)과 전후하는 시기로 유추하였으며, 문명대는 분황사 금강역사상(634)보다는 1/4분기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백남주는 분황사 금강역사상을 잇는 상이라 하였다(장충식,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87, 102~103쪽; 문명대, 앞의 논문, 92쪽(앞의 책, 226쪽에서 재수록); 백남주, 앞의 논문, 78쪽. 최근에는 제작시기를 7세기 후반~8세기 전반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김은화, 『경주 구황동폐탑지의 복원적 고찰』, 『고구려발해연구』33, 고구려발해학회, 2009, 174쪽).
²⁶⁷ 장충식은 이곳에서 옥개석과 탑신석, 감석 및 사리방공석 등이 함께 노출된 것에 주목하여 별개의 석탑 양식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장충식, 앞의 책, 104~105쪽), 김은화는 이 견해에서 더 발전하여 분황사 석탑과 다른 초층탑신은 분황사 석탑과 동일한 형식 그리고 그 이후의 층은 전형양식의 석탑을 가진 새로운 異型石塔으로 파악하였다(김은화, 앞의 논문, 157~180쪽). 필자는 전형석탑의 옥개석과 감석의 양식에서 8세기 후기 이후의 특징을 확인하여 금강역사상과 전형석탑의 부재는 별개의 탑으로 판단하였으며,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문비의 문절주의 치석 방법이 분황사 석탑과 동일한 방식인 점 등을 들어 동일 형식의 석탑으로 간주하였다.

²⁷⁷ 『東京通志』卷7 佛宇條 “...又東南古塔已壞 石堆有金剛力士刻像及石屏八...”

²⁸⁷ 『昭和六年 慶州古蹟及遺物調査書』, 財團法人 慶州古蹟保存會, 1917.(장충식, 앞의 책, 101쪽 내용 및 각주221에서 재인용).

하였다. 동탑과 서탑에 조각된 금강역사상의 치석 및 양식적 특징은 다소 다른데, 이는 부조상을 제작한 장인의 기술적 차이로 추정된다(도 15-1·15-2).²⁹⁾ 금강역사상은 나신에 ‘U’자형과 ‘11’자로 늘어진 천의와 발목을 덮은 긴 균의에서부터 짧은 균의까지 다양하게 착의하였으며, 머리는 높게 올린 상투머리에 寶珠와 小花 등이 장식된 띠를 묶거나 낮은 상투머리에 화관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손 모양은 16구의 금강역사상 중 14구가 한 손에 금강저를 쥐고 있으며, 나머지 2구 중 1구는 권법 자세를 1구는 삼지창을 가지고 있다. 대좌의 경우 서탑의 금강역사상은 모두 연화좌를, 동탑의 금강역사상은 암좌를 밟고 있다.

장항리사지 동·서오층석탑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 사례로 8세기 말기~9세기 전기로 편년되는 울산 간월사지 남북삼층석탑이 있다(도 16). 간월사지 석탑은 남북으로 각각 배치된 이탑식 가람으로 장항리사지 석탑의 형식은 물론 가람 배치 방식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남북삼층석탑의 금강역사상이 양자 간의 조각 기법 및 양식적 차이를 보이는 것까지 닮아있다. 그러나 남북석탑의 부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항리사지 석탑의 것보다 그리고 남탑과 북탑 상호 간에서도 양식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장항리사지 석탑 금강역사상의 대다수가 금강저를 쥐고 있는 반면 간월사지의 그것은 모두 권법 자세를 취한다. 천의의 방식도 몸 옆으로 늘어지는 ‘11’자형의 천의만 나타나며, 발의 동세도 표현하지 않아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석굴암의 역사상과 더욱 친연성을 보인다. 남탑과 북탑 부조상의 차이점은 현저한 조각 기법을 들 수 있으며, 북탑은 남탑과 달리 금강역사상의 광배와 문비의 문고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도 17-1·17-2). 그러나 이들 금강역사상은 모두 나신에 무릎까지 덮는 중간 길이의 균의 혹은 짧은 균의를 착의하고 있다. 영락과 목걸이는 착용하지 않고 팔목과 발목에 팔찌와 발찌의 착용은 확인된다. 이전 금강역사상과의 양식적인 큰 차이점은 흉골을 뚜렷이 표현한다는 점이다(도 17 참조).

간월사지 북탑의 역사상처럼 광배의 표현 없이 천의를 마치 광배처럼 표현하고 천의자락은 ‘11’자형으로 몸 옆으로 늘어뜨리며, 짧은 균의를 착의한 금강역사상의 모습은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황룡동 만호봉사지 출토 石材 금강역사상에서도 확인된다.³⁰⁾ 이 금강역사상은 현재 4개의 기둥 모양 석재에 각 2구씩 조각되어 있다(도 18). 금강역사상의 역동적인 동세를 따라 석재가 심하게 깎여

29) 김지현, 앞의 논문, 23~26쪽 참조.

30)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경주 하동출토 금강역사상은 최근 경주 황룡동 만호봉사지에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주지역폐사지 석조문화재 조사 연구』, 경주시·경주대학교, 2010, 232~235쪽).

있어 금강역사 측면의 원래 형태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신라의 불탑에는 초층탑신에 문비와 함께 금강역사상이 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석재의 모습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의 탑신으로 파악한다면 좌우의 우주를 모각하지 않고 금강역사상을 조각한 것이 된다. 우주를 모각하지 않고 부조상을 새긴 사례는 경주 읍성 동문터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탑신석이 있다(도 19). 4매의 석재를 결합한 형태로 중앙에 문비를 새기고 좌우에는 명왕상을 조각하였는데, 우주가 모각되지 않고 부조가 양모서리에 배치되는 점 등이 매우 유사하다.³¹⁾ 단언할 수 없지만 만호봉사지 부재 역시 4매의 석재를 결합한 형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재만으로는 불탑의 원형을 판단하기 힘들다. 전술하였듯이 몸 옆으로 늘어지는 ‘11’자형의 천의와 천의를 마치 광배처럼 표현한 모습, 짧은 균의, 발의 동세 등은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에 제작된 간월사지 석탑의 금강역사상과 양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금강역사상의 지물로 보주가 나타나는 점, 우주를 생략한 표현 기법 등에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나, 양식적 특징으로 살펴본 만호봉사지 금강역사상은 역시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서악동에 위치한 傳영경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장항리사지 그리고 울산 간월사지의 것과는 또 다른 형식의 석탑으로 초층탑신에 2구의 금강역사상을 부조하였다(도 20). 기단부는 석재를 피층적으로 치석하여 쌓았으며 탑신은 방형, 옥개석은 전탑과 같이 들여쌓기와 내어쌓기로 표현하되 화강암 一石에 치석하였다. 크기는 분황사 석탑처럼 전탑계열의 불탑에 분류할 수 있겠으나 분황사의 그것처럼 석재를 造積하지 않고 結構하였다. 신라시대 전탑계 석탑은 분황사 석탑과 같은 조적형 석탑과 옥개석만 전탑의 형태를 남기고 다른 부재는 일반형 석탑처럼 결구한 결구형 석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傳영경사지 석탑은 후자에 해당한다.³²⁾ 초층탑신 네 면 중 南面 한 곳에만 감실형 문비를 마련하고 좌우에 금강역사상 2구를 조각하였다. 목에

31) 이 탑신석의 부조는 금강역사상으로 추정하였으나 남궁현은 남궁현, 『경주읍성 수습 탑신석 부조상에 관한 고찰』, 『회당학보』11, 회당학회, 2006, 319~379쪽에서 도상의 특징을 통해 명왕상으로 파악하였다.

32) 전탑계 석탑의 유형 분류와 그에 따른 명칭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진홍섭, 『韓國模博石塔의 類型』, 『문화재』3, 문화재관리국, 1967, 1~21쪽 ; 장충식, 『新羅模博石塔考』, 『신라문화』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145~169쪽 ; 박홍국, 앞의 책, 28~31쪽 ;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6쪽 ; 김지현, 앞의 논문, 2012, 35쪽 등.

표현된 힘줄이 형식화되어 두드러진 선처럼 표현된 금강역사상은 높은 암좌 났고 있으며, 1구는 금강저를 쥐고 1구는 권법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비는 단순화되었지만 감실의 형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문고리는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동 지역의 불탑 중에는 전탑에 금강역사상을 배치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조탑동 오층전탑과 동부동 오층전탑이다. 조탑동 오층전탑은 기존의 전탑과는 달리 석재와 전재를 함께 사용하여 조성한 탑이다(도 21). 초층탑신은 화강암의 석재를 쌓아올려 제작하였으며, 현재 南面에 감실을 마련하였다. 감실은 상인방과 좌우 문틀을 가공하였으며, 하인방석은 상단에 부분 가공하고 하단은 쌓아올린 석재와 같은 형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문틀석 하단부가 현재 문지방을 치석한 돌과 어색하게 연결되어 있어 조성 초기에는 하인방석 역시 상인방석처럼 가공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실의 문틀 좌우에는 금강역사상 2구를 배치하였으며, 금강역사상의 양식은 낮은 육계와 화관의 착용, 권법 자세, 'X'자형의 영락 등에서 고식이 간취된다. 그리고 발의 동세와 높은 암좌 그리고 암석에서 사선으로 처리하여 높고 급격한 節理의 표현 등에서는 8세기 후기의 새로운 양식이 확인된다. 전탑에 석재를 혼합시켜 표현한 방식과 금강역사상의 제작시기를 통해 조탑동 오층전탑은 대략 8세기 후기 이후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된다.³³⁾

동부동 오층전탑은 현재 화강암 석재로 제작된 3단의 장대석 위에 구축되어 있다(도 22). 현재 초층탑신의 남쪽면에 감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화강암의 장방형 석재로 감실의 상하인방과 좌우문설주를 표현하고 있다. 하인방석에는 마치 우주와 탕주를 모각하듯 공간을 구획하여 2개의 안상을 시문하고 있으나 조성 당시부터 안상을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다.³⁴⁾ 이층탑신의 동·서·북면과 삼층탑신의 남면에는 크기가 작은 감실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층탑신의 남면에는 가공한

³³⁾ 조탑동 전탑의 금강역사 부조상의 경우 백남주와 박홍국은 8세기 중엽 경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성립과 전개』, 『미술사학연구』208, 한국미술사학회, 1995, 105쪽; 박홍국, 앞의 책, 144쪽), 신용철은 9세기 초반으로 추정하였다(신용철, 『경북 안동지역 佛塔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99쪽). 문명대는 9세기 중엽으로 유추하였으나(문명대, 앞의 논문, 98쪽), 이후 재수록 된 책에서는 8세기로 기술하고 있다(문명대, 앞의 책, 201쪽). 박경식 역시 8세기로 파악하였다(박경식, 앞의 책, 71쪽).

³⁴⁾ 박홍국 역시 감실 입구의 안상문 대석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동부동 오층전탑이 초건 당시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박홍국, 앞의 책, 144쪽). 그리고 이 탑의 조성 시기는 9세기 초를 하한연대로 추정하였다. 백남주는 9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백남주, 앞의 논문, 105쪽), 문명대는 앞의 논문에서는 9세기 후반경(문명대, 앞의 논문, 99쪽), 이후 재수록 된 책에서는 8세기로 추정하였다(문명대, 앞의 책, 211쪽).

판석을 감입하였는데, 판석 좌우에 문틀을 모각하고 판석 표면에는 금강역사상 2구를 조각하고 있어 역사상이 감실 문 앞에 시립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금강역사상은 낮은 육계와 화관, 2구 모두 금강저를 쥐고 있는 모습, 천의의 날림 등에서 고식이 간취되며, 높은 암좌와 암석의 절리, 발의 동세 등에서는 8세기 후기의 새로운 양식을 엿볼 수 있다. 금강역사상을 판석의 전면에 배치하는 방법과 금강역사의 제작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동부동 오층전탑은 8세기 말기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⁵⁷ 혹여 안상을 표현한 하방석이 초창 당시의 것이라면, 동부동 오층전탑은 9세기 전기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무렵,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에서는 불국사 무구정 광탑(다보탑)에 이은 새로운 형식의 사사자삼층석탑이 등장한다(도 11 참조). 소위 異型양식의 석탑이라 불리는 특수형 석탑으로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과 다른 유형의 석탑을 일컫는다.³⁶⁷ 하층기단은 일반형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결구방식을 갖추었으나 상층기단의 경우 네 모서리에 사자상을 기둥으로 삼고 중심에는 인물상을 배치한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 탑신부는 일반형 석탑과 동일한 방향의 탑신과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초층탑신 각 면에는 문고리와 자물쇠를 갖춘 문비를 모각하고 그 좌우에 금강역사 2구(북서), 제·범천 2구(남동), 사천왕상 2구씩(북동, 남서) 8구의 부조상이 배치되어 있다. 전술한 불탑이 금강역사상만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 이 석탑은 같은 공간에 성격이 다른 여러 도상들을 부조한 복합도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금강역사상의 1구는 권법 자세를, 1구는 금강저를 쥐고 있으며, 이들의 머리는 낮은 육계에 꽃으로 장식된 띠를 둘러 고식의 양식을 보인다. 그러나 무릎까지 오는 중간 길이의 균의와 'U'자형 천의, 발의 동세 등에서 8세기 후기 이후의 양식이 간취된다. 복합도상 부조상 중에서도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과 같은 구성의 도상을 보이는 불탑은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의 금강산 장연사지 삼층석탑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장연사지 삼층석탑은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이며, 배치된 공간도 초층탑신이 아닌 상층기단이라는 점에서 차

³⁵⁷ 박흥국은 탑의 조성시기를 하한 9세기 초로 파악하였으며(박흥국, 앞의 책, 144쪽), 백남주는 9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백남주, 앞의 논문, 105쪽), 문명대는 앞의 논문에서는 9세기 후반경(문명대, 앞의 논문, 99쪽), 이후 재수록 된 책에서는 8세기로 추정하였다(문명대, 앞의 책, 211쪽).

³⁶⁷ 정영호는 일반형석탑과 같이 방형이라는 기본 형식은 고수하되 특이한 외양을 이루고 있는 석탑을 특수형 석탑이라 하였다(정영호, 앞의 논문, 40쪽). 진홍섭은 특수양식의 석탑을 기단부와 탑신부의 변형 그리고 전체의 변형 등으로 구분하였다(진홍섭, 『통일신라시대 특수양식의 석탑』, 『미술사학연구』158·159, 한국미술사학회, 1983, 19~36쪽). 장충식은 전형석탑과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는 석탑으로 기단부 또는 탑신부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특수형 석탑 즉, 異型석탑이라 하였다(장충식, 앞의 책, 145~146쪽).

이가 있다. 금강역사 2구는 모두 권법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나신에 중간 길이의 균의를 착의, 천의는 머리 너머로 역동적인 원을 그리며 광배를 대신하고 있다. 이완된 근육의 표현과 발의 동세 등의 표현 기법이 황룡사 칠주본기의 금강역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초층탑신에는 문비가 사각형으로 단순화되었지만 감실화하였고, 문고리와 자물쇠를 표현하였다. 상층기단에 금강역사상이 복합도상의 일부로 구성된 또 다른 석탑은 9세기 후기~말기의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이 있다(도 23). 제석과 범천 대신 공양자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초층탑신 네 면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금강역사상 1구는 금강저를, 1구는 권법자세를 취하고 있다. 광배는 표현하지 않았으며, 천의는 몸 옆으로 늘어진 '11'자형이다. 균의는 도식화된 주름으로 인해 마치 바지처럼 표현되고 있으며, 발의 동세가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신라 불탑의 사례와 형식을 살펴보았다. 불탑의 형식, 부조된 금강역사상의 도상 구성과 금강역사의 수, 부조된 위치, 감실과 문비 및 문고리의 有無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금강역사상이 浮彫된 신라 佛塔의 형식

연번	탑 명 칭	시기	불탑의 형식				부조상 도상 구성		금강역사 부조 상數		금강역사 부조 위치		초층탑신				소재지
			석탑		전탑	금강역사	복합도상	8구	2구	기단부	탑신부	감실 및 문비 有無		문고리 및 자물쇠 有無			
			일반형	특수형								有	無	有	無		
			조적	결구	龕	模	有	無	有	無							
1	분황사탑	634		●		●				●	●					경북 경주	
2	분황사 동방배탑지	7C後 7C末		●		●				●	●			-		경북 경주	
3	장항리사지 동서오층탑	8C後	●			●				●	●			●		경북 경주	
4	조탑동 오층탑	8C後 이후				●				●	●			-		경북 안동	
5	간월사지 남북탑	8C末 9C前	●			●				●	●			●	●	울산 울주	
6	傳법림사지 오층탑	8C末 9C前				●				●	●			●		경북 안동	
7	화엄사 사사자탑	8C末 9C前		●			●			●	●			●	●	전남 구례	
8	傳영경사지 삼층탑	9C前			●		●			●	●			●		경북 경주	
9	중흥산성 삼층석탑	9C後 9C末	●				●			●		●		●	●	전남 광양	
10	장연사지 삼층탑	9C末 10C前	●				●			●		●		●	●	강원 금강산	
*	만호봉사지 석재편	8C末 9C中		-			●			●		-		-		경북 경주	

IV. 佛塔과 금강역사 浮彫像의 조형적 관계

이번 장에서는 <표 2>를 참조하여 불탑과 금강역사 부조상 간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완형의 불탑을 알 수 없는 만호봉사지 금강역사 부조상을 제외한 10건의 불탑에 금강역사상이 조상된다. 불탑의 형식을 살펴보면 일반형 석탑 4건, 특수형 석탑 1건, 전탑형 석탑 3건, 전탑 2건이 확인된다. 전탑형 석탑과 전탑을 전탑계열의 불탑으로 구분한다면 5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역사상이 부조된 10건의 불탑 중에서 전탑계열의 불탑 형식이 50%를 차지한다. 언뜻 보기에 일반형 석탑 역시 10건 중 4건으로 전탑계열의 불탑과 같이 절반에 해당하는 수를 차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건 중 2건은 금강역사와 함께 다른 도상들이 조합된 복합도상이며 이는 특수형 석탑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도상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배치된 금강역사상은 성역 경계의 상징 혹은 문지기로서 그의 역할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금강산 장연사지 삼층석탑의 일반형 석탑 2건에서 역사상을 포함한 복합도상이 상층기단에 부조되어 문비와 별개로 조성된 것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0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장연사지 삼층석탑에 조각된 복합도상 속의 금강역사상은 탑신의 감실 혹은 문비의 좌우에 역사상만으로 구성·배치된 금강역사상과 역할 및 성격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도상 속의 금강역사상은 함께 조합된 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금강역사상으로 구성된 도상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신라 불탑의 형식은 전탑계열의 불탑 5건과 일반형 석탑 2건에 불과하다.

먼저 전탑계열의 불탑을 살펴보면 2건은 7세기의 분황사 석탑과 분황사 동방패탑지 석탑재로 초기에 제작된 조적형 석탑이다. 그리고 2건은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에 안동에서 조성된 전탑, 1건은 9세기 전기의 경주 傳영경사지 석탑으로 결구형 석탑이다. 조적형 석탑은 초층탑신 네 면에 감실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좌우 2구씩 총 8구의 금강역사상을 부조하였다. 그러나 안동에서 조성된 전탑의 경우 조탑동 전탑은 초층탑신 네 면 중 남면에만 감실을 설치하여 금강역사상은 총 2구가 배치된다. 또 傳법림사지 전탑의 경우 감실은 여러 군데 두었지만, 2층탑신 남면에만 금강역사 2구를 부조한 판석을 감입하여 문이 닫힌 감실의 상징 및 형식화를 피하였다. 傳영경사지 석탑 역시 초층탑신 남면에만 문비를 마련하

고 좌우에 2구의 금강역사를 조각하였다. 다시 말해 8세기 말기~9세기 전기가 되면 불탑에 부조된 금강역사상의 수가 기존의 8구→2구로 감소하여 제작되는 새로운 양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감실 수의 감소와 직결된 결과이며, 이는 다시 불탑의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작아진 불탑의 규모는 초층탑신 네 면에 감실을 각기 제작하기에 구조적·공간상으로 인한 조형 비례의 부조화 및 실용상의 이유 등으로 감실 수의 감소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탑 규모에 의한 구조적·공간적 변화는 감실과 더불어 금강역사 부조상의 수가 기존의 8구에서 2구로 줄어든 새로운 배치 방식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불 때 전탑계열의 불탑에 부조된 금강역사상은 8세기 말기~9세기 전기가 되면 8구→2구로 변화되는 시기적 특징을 가진다.

한편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전탑계열의 불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이 성립된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석탑 형식이 된다. 전술하였듯이 그 시원이 되는 석탑은 682년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이다. 감은사지 석탑의 표면에는 부조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7세기 말기에 조성된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는 문비의 제작이 확인된다. 그러나 8세기 후기 이전에 조성되는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에서는 부조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형 석탑은 초기에 감은사지와 고선사지 석탑과 같이 別石을 결합하여 시원기적인 석탑을 제작하고 692년 구황동 석탑과 8세기 중기의 불국사 석탑에서 구조적 견고함을 모색 그리고 정착 단계를 거치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 통일신라시대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의 표면에는 금강역사를 포함하여 부조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존의 불탑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형식과 양식을 갖춘 석탑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목탑과 전탑에서 석탑이라는 塔材의 변화와 더불어 石材는 동일하나 조적 기법에서 결구 기법이라는 새로운 제작 기술과 치석 방법의 변화 등이 직접적 원인이라 생각된다. 즉, 부조상으로 불탑을 장엄하기 이전에 새로운 석탑 형식이 성립되는 일정 시기와 구조적 기술이 적용되는 정착 단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시기는 대략 감은사 석탑(682)의 등장부터 8세기 중기 불국사 석탑이 제작되는 약 60~80년 정도로 파악된다. 석탑의 구조적 완성이 일정부분 완수에 달해 정착되는 시점은 8세기 후기로 파악되는데, 이 시기부터 석탑에 부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조상은 도상을 통해 불탑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이기도 하나, 그 이전에 건축물로서의 석탑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조형적 비례의 완성이 필요하다. 또한 석조 불상을 다루는 능숙한 기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8세기 석굴암 조각들을 통한 석재 치석의 경험은 향후 탑부조상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석불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석탑의 건축적 기술과 석조상의 완숙한 기술적 조합이 8세기 후기에 다양한 석탑 부조상의 등장 을 가능케 한 것으로 생각된다. 8세기 후기에 나타나는 석탑 부조상은 대표적으 로 김천 갈항사지 석탑(758)과 경주 장항리사지 석탑과 원원사지 삼층석탑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중 장항리사지 석탑의 초층탑신에는 문비와 함께 금강역사상을 부조하였다.

경주 장항리사지 오층석탑은 석탑의 형식만 다를 뿐 분황사 석탑과 역사상 이 배치된 위치와 구성 및 수가 동일하다. 그러나 분황사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역사상의 양식과 감실이 문비로 표현된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형양식의 석탑으로 형식이 바뀌면서 실제 문과 함께 내부 공간을 표현한 감실대신 문비가 등장하는데, 이는 불탑 형식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된다. 보편적으로 목탑, 전탑, 적석탑과 일반형 석탑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내부 공간의 有無이다. 물론 모든 전탑과 적석탑이 내부 공간을 마련 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개 대형으로 조성된 이들 불탑의 형식은 내부에 출입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한다. 일반형 석탑은 탑의 구조상 내부 공간도 출입문도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구조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비를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장항리사지 석탑의 금강역사상은 실제 감실과 문 옆에 조각된 금강역사상을 의식하여 조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황사 석탑과 같이 금강역사상이 감실의 전면 좌우에 위치한 실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항리 사지 석탑에서는 역사상의 광배를 초층탑신의 우주에 걸쳐 조각하였다(도 15 참조). 이와 같은 기법은 금강역사상이 문비 전면에 배치된 것과 같은 공간적 깊이감을 주어 원근감에 따른 사실감을 높인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의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과 울산 간월사지 남탑에서도 나타난다.

8세기 후기의 경주 장항리사지 석탑과 8세기 말~9세기 전기의 울산 간월사 지 남탑의 경우 네 면에 모두 문비와 문고리 그리고 좌우에 금강역사상을 배치하 여 총 8구의 역사상을 조각하였다.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에 제작된 전탑 2기와 傳영경사지 석탑에 2구의 역사상을 배치한 것과 비교할 때 장항리사지와 간월사 지 석탑의 역사상은 분황사 석탑에서 나타난 古式의 배치 방식을 잇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반형 석탑의 구조적 정착을 이루고 나아가 발전적 변화의 일환으로 석탑 장엄 즉, 부조상의 제작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분황사 적석탑을 떠올렸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에서 달라진 구조만 큼 축소된 초층탑신에 문비와 함께 8구의 금강역사상을 배치하는 것은 彫像과 공간 간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답답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연유로 간월사지의

경주 남탑에는 문비와 문고리를 제작하였지만 북탑에서는 문고리의 생략을 통한 조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실제 문고리가 조각된 남탑보다 생략된 북탑을 바라볼 때 비교적 시각적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문비는 제작하였지만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지 않은 석탑들도 확인되는데, 경주 지역에서는 8세기 말기의 창림사지 삼층석탑, 8세기 말~9세기 전기 인룡사지 동서삼층석탑, 9세기 중기의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등이 있다.³⁷⁷ 문비를 제작하여도 금강역사상을 부조하지 않은 것은 고선사지 석탑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고선사지 석탑과 전술한 세 석탑의 차이점은 3기의 석탑 모두 상층기단에 팔부중상을 부조하였다는 점이다. 부조상을 조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문비와 함께 금강역사상을 조상하지 않은 이유는 언급한 일반형 석탑의 형식 변화에 따른 문비와 금강역사 조상의 활용성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문비 좌우에 금강역사상을 배치해야하는 암묵적 인식에 대한 변화로 작용하고 더불어 금강역사상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3기의 불탑에 새겨진 문비와 문비 좌우에 조상되지 않은 금강역사상 그리고 팔부중상의 부조를 통해 당시 금강역사와 팔부중 간의 관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도상 간의 명확한 관계를 언급한 경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當代 불탑에 부조된 다양한 도상들이 위계에 따라 공간을 달리하며 조각되었던 것으로 보아 관계가 모호한 이들을 초층탑신과 상층기단에 함께 조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천왕상, 팔부중상, 불보살상 등이 위계에 따라 공간을 달리하며 다른 도상들과 함께 배치되었던 것에 반해, 유독 금강역사상은 역사상만으로 탑신부 특히 초층탑신에 주로 조상된다는 특징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금강역사상의 주된 배치공간인 초층탑신에는 2장에서 전술하였듯이 8세기 후기 이후가 되면 금강역사상 이외에도 사천왕상, 불·보살상 등이 신앙적 성행과 경전적 내용을 근거로 불탑에 조각된다.³⁸⁷ 그리고 9세기 전기 이후가 되면 금

³⁷⁷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조성시기가 8세기 초라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신용철,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고찰 : 석탑의 편년을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3, 동양미술사학회, 2002, 34~35쪽).

³⁸⁷ 사천왕상이 『금광명경』의 성행으로 조성되었음을 많은 논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명대, 『한국탑부조상의 연구(2) : 신라 사천왕상의 연구』, 『佛敎美術』5, 동국대학교박물관, 1980, 10~55쪽(『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232~278쪽에서 재수록); 조원영, 『신라 하대 사천왕부조상의 조성과정과 배경』, 『역사와 세계』19,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5, 171~211쪽;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16, 한국미술사학회, 1997, 5~47쪽; 권강미,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문물연구』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3, 45~102쪽; 김지현, 앞의 논문, 2010, 83~112쪽; 임영애, 『신라 불탑 탑신 부조상의 추이 :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선사와 고대』35, 한국고대학회, 2011, 225~248쪽 등

강역사상은 더 이상 조각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부조상이 등장할 수 있는 당시의 불교적 배경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불탑의 형식 변화에서 온 구조적 상징성과 초층탑신의 협소한 공간은 금강역사상이 부조상으로서 도태될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금강역사상은 감실을 가진 목탑, 전탑, 적석탑과 같은 초기 불탑의 형식과는 잘 어울리는 도상이지만 통일신라시대 새롭게 성립된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은 도상인 것이다. 탑에서 실제 내부 공간과 감실이 필요치 않은 전형양식의 석탑의 구조적인 특징은 감실과 금강역사상을 연결 짓던 불탑 조성 초기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전형석탑에 부조하기 적합한 도상을 찾게 된 이유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성행하던 신앙과 경전에 걸맞은 새로운 도상의 출현과 이에 따른 도상의 부조는 자연스레 금강역사상을 부조상으로 선호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10건의 불탑 중 7건은 금강역사상으로, 3건은 복합도상으로 부조되었다. 복합도상의 부조는 금강역사 도상으로만 부조된 것과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7건의 신라 불탑에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것이다. 7건의 불탑 형식을 살펴보면 일반형 석탑인 경주 장항리사지 석탑과 울산 간월사지 석탑을 제외하고 5건 모두 전탑계열의 불탑임이 확인된다. 초기 분황사 석탑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내부 공간과 같은 감실, 문이 있는 고대 목탑, 전탑, 적석탑 등의 초층탑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조상은 분황사 석탑과 같이 성역의 경계 및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금강역사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규모가 작아진 전탑과 석탑에 감실 혹은 형식적인 감실이 나타나더라도 유독 전탑계 불탑들에서 금강역사상이 부조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불탑에 금강역사상을 배치할 경우 금강역사상을 8구 배치하는 형식은 2구를 배치하는 것보다 古式으로, 이 古式의 배치는 경주일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간월사지 남북석탑이 위치한 울산은 당시 행정구역상 경주(금성)가 포함된 양주지역에 속한 東安郡으로 경주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⁹⁾ 따라서 전탑계열의 불탑 형식과 함께 탑에 8구의 금강역사상을 부조하는 방식은 초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수용되어 경주 일대 즉, 중앙에서 유행하던 탑

이 있다. 팔부중은 경전상에 등장하는 불법을 경칭하는 청중의 개념으로 제작되었다는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미술사연구』20, 미술사연구회, 2006, 197~236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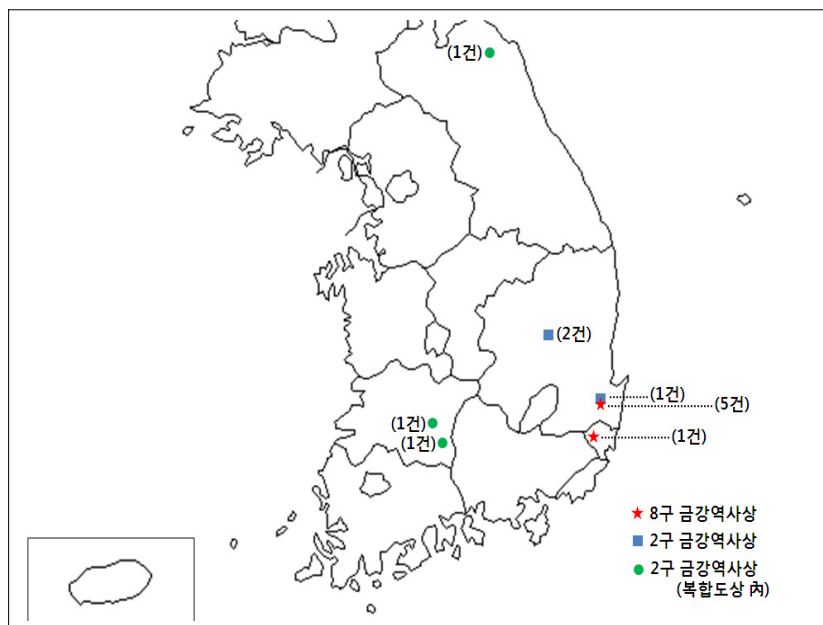
³⁹⁾ 『三國史記』卷34 雜誌 第3 地理 1 良州.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에도 문비와 함께 금강역사상의 부조라는 고식을 시도해 보았던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구조와 축소된 탑신에 문비와 함께 8구의 금강역사상 배치는 공간과 조상의 부조화로 인해 이후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전형양식의 석탑 구조에 맞고, 유행하였던 신앙에 따른 도상의 제작은 금강역사상의 도태를 촉진시켰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형양식 석탑의 구조적 안정 및 정착과 부조상의 출현 등으로 전성기를 이루던 경주 일대와는 달리 안동에서는 변화된 전탑의 조성이 감지된다. 즉, 전탑의 규모 축소에 따라 달라진 감실의 수 그리고 이에 따른 2구의 금강역사상 배치 형식이 새롭게 나타난다.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경주에 조성된 전탑도 안동과 마찬가지로 배치 형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주에서는 전탑보다 전형양식의 석탑이 더 선호되었으며, 傳영경사지 석탑과 같은 독특한 전탑형 석탑으로 변화를 모색, 또한 작아진 석탑의 규모에 안동의 전탑과 같은 배치 형식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역사상은 신라가 초기 불교를 수용할 때 받아들였던 전탑계열의 불탑에 부조되던 도상으로 경주 일대에서 특히 유행하는 특징을 가진다(삽도 1).

삽도1.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신라 佛塔의 분포



이는 수도 경주에서 초기 불교 수용과 함께 불탑을 조성하였고, 그 불탑의 종류는 전탑 혹은 조적형 석탑으로 추정되므로 금강역사상이 경주 일대에서 특히 성행했던 이유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와 함께 등장한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은 형식 및 구조적인 근본적 변화로 인해 금강역사 부조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전형양식 석탑의 부조상은 새롭게 등장·유행하는 사천왕상 혹은 팔부중상에 탑신 彫飾의 자리를 내주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9세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과 함께 여타 부조상들이 성행했던 것에 반해 금강역사상은 거의 부조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양식의 고식과 보수성이 남아 있는 경주 지역에서는 전형양식의 석탑에 부조되는 다양한 도상들 속에서 드물게 역사상이 조성되며 함께 공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강역사상은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제작된 불탑들 특히 전탑과 관련되는 초기의 고식 불탑에 어울리는 부조상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신라시대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불탑의 출현과 부조상의 전개 양상 그리고 사례와 형식을 통한 불탑과 금강역사 부조상의 조형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634년에 조성된 분황사 석탑은 현존 最古의 불탑인 동시에 부조상이 처음 등장한 사례로 도상은 금강역사이다. 7세기 당시 완형의 전탑과 목탑 등이 남아 있지 않아 단정하기 힘들지만, 석장사지, 사천왕사지 등의 불탑 殘存材를 통해 부조상을 조성할 때 반드시 금강역사상을 배치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황사 석탑과 같이 감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금강역사상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분황사 석탑은 조적형 석탑으로, 塔材만 다른 전탑과 비교할 때 공력과 경제력 소모가 심해 재료의 선택이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불탑의 형식과 역사상의 양식적 특징은 중국 唐代의 전탑 및 조각과 직접적인 영향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인도 스투파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교 공인 이후부터 신라는 古來로부터 불국토라는 이미지를 만들며 인도와의 직·간접적 관련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분황사는 부처와 비견되는 선덕여왕이 632년 왕위에 오르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사찰로 추정된다. 이러한 곳에 조성한 불탑의 석재와 조적 기술을 인도 스투파의 塔材와

조적 방식을 의식·제작하여 불교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스투파의 토라나 및 베틀카 그리고 네 문에 조각된 약사의 조형적 상징성은 부처의 공간 즉 성역의 경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조형은 초기 중국 석굴의 전실과 사찰의 중문 등에 조상된 금강역사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분황사 석탑의 역사상 역시 사리=부처 그리고 부처의 공간이라는 성역의 경계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분황사 석탑을 통해 7세기 전기와 중기 경에는 불상보다 사리신앙의 주체로서 불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한국 탑과사의 획기적인 불탑 형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명 전형양식의 일반형 석탑이라는 것이다. 전형양식의 석탑은 신라 분황사의 조적형 석탑과 달리 석재들을 결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되었는데, 달라진 기술 방식은 곧 불탑 구조와 형식의 변화로 나타난다. 전형양식의 석탑이 구조적으로 정착과 완성을 이룬 8세기 후기부터 금강역사상과 사천왕상 등의 부조상이 초층탑신에 나타난다. 문비와 함께 등장한 금강역사상은 분황사 석탑과 달리 좁은 초층탑신과 내부 공간의 不在 및 문비의 모각 등으로 조형적 변화를 꾀한다. 그리고 금강역사상을 감실 좌우에 2구씩 배치하는 기존의 방식은 전형양식 석탑에서 초층탑신의 달라진 조상 공간과의 조형적 부조화를 보이게 된다. 즉, 통일신라시대 전형양식 석탑의 초층탑신에는 금강역사상보다 사천왕상의 공간 활용도가 더 높다. 당시 성행하던 신앙과 경전 등이 사천왕 부조상 출현의 결정적 이유가 되겠지만, 석탑의 구조적인 변화는 사천왕상의 부조 제작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신라 불탑에 금강역사상이 제작된 사례는 약 11건 정도 파악된다. 원형의 불탑을 알 수 있는 것은 10건, 시기가 하강하여 복합도상 속의 일부로 금강역사상이 제작된 3건을 제외하면 총 7건의 금강역사 부조상이 확인된다. 이 중 5건이 전탑계열의 불탑에 제작되어 금강역사상은 불탑의 형식과 밀접한 도상임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역사상은 통일신라시대 새로운 전형양식의 석탑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도상이다.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불탑은 시기가 하강할수록 규모가 작아지는데, 전탑계열의 불탑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함께 감실의 수가 감소하거나 생략되는데 금강역사상이 배치되는 방식 역시 8구에서 2구로 감소된다. 이를 통해서도 금강역사상이 다른 도상들보다 불탑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역사상은 9세기 전기 이후의 불탑에서는 거의 부조되지 않는 시기성을 띤다. 그리고 금강역사상이 부조된 전탑계열의 불탑은 경주 일대와 전탑의 보존

이 잘 되어 있는 안동에서 확인되는 지역적 특징도 확인된다. 이는 탐부조상으로 제작된 금강역사상이 전탑계열의 불탑처럼 초기 불탑의 형식에 등장했던 부조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강역사상이 조각된 초기 불탑은 불교의 빠른 수용을 보였던 경주 일대에서 조성된 제한적 지역성, 9세기 전기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기성과 직결된다. 當代 유행하던 신앙 및 경전적 도상과 더불어 9세기 전형 양식의 일반형 석탑의 전국적 확산은 결국 금강역사상 부조상이 도태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 투고일 2014년 1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8일 ■

참고문헌

<사료>

- 『三國遺事』
『三國史記』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大般若波羅密多經』
『東京通志』

<국내>

- 진홍섭, 『韓國模塼石塔』, 『문화재』3, 문화재관리국, 1967.
정영호, 『韓國石塔의 特例樣式 考察(上) : 統一新羅時代 石塔을 中心으로』, 『論文集』3, 단국대학교, 1969.
문명대, 『한국탑부조상의 연구(1) : 신라인왕상(금강역사상)』,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진홍섭, 『통일신라시대 특수양식의 석탑』, 『미술사학연구』158·159, 한국미술사학회, 1983.
장충식, 『新羅模塼石塔考』, 『신라문화』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_____,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987.
문화재관리국, 『芬皇寺石塔 實測調査報告書』, 1992.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장충식, 『고유섭전집 I 한국탑파의 연구』, 동방문화사, 1993.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성립과 전개』, 『미술사학연구』208, 한국미술사학회, 1995.
장진홍, 『新羅金剛力士像에 관한 武道史的 考察』,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진홍섭, 『韓國의 石造美術』, 문예출판사, 1995.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16, 한국미술사학회, 1997.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황수영, 『황수영전집』3, 혜안, 1998.

- 박경식, 『芬皇寺模塼石塔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0, 신라문화선양회, 1999.
- _____, 『KOREAN Art Book 탐과』, 예경, 2001.
- 신용철,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고찰 : 석탑의 편년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3, 동악미술사학회, 2002.
- 천득염·이용관, 『전탑』, 대원사, 2002.
- 국립중앙박물관, 『統一新羅』, 2003.
- 권강미,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문물연구』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3.
- 문명대,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 주경미,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역사민속학』17, 역사민속학회, 2003.
- 남궁현, 『경주읍성 수습 탑신석 부조상에 관한 고찰』, 『회당학보』11, 회당학회, 2006.
-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미술사연구』20, 미술사연구회, 2006.
-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임영애, 『석굴암 금강역사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 김은화, 『경주 구황동폐탑지의 복원적 고찰』, 『고구려발해연구』33, 고구려발해학회, 2009.
- 신용철, 『경북 안동지역 佛塔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임영애, 『중국 석굴의 금강역사 : 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3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
- 경주시·경주대학교, 『경주지역폐사지 석조문화재 조사 연구』, 2010.
-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문물연구』1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0.
- _____, 『경주 장항리사지 오층석탑의 浮彫像 고찰』, 『동악미술사학』12, 동악미술사학회, 2011.
- 이광현, 『통일신라 금강역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說’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20,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 임영애, 『신라 불탑 탑신 부조상의 추이 :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선사와 고대』35, 한국고대학회, 2011.
- _____, 『황룡사 중금당 불권속 16존상의 복원 : 불제자상, 금강역사상과 사자상 그리고 공양자상』, 『신라사학보』38, 신라사학회, 2011.
- 김지현, 『新羅 石塔의 構造와 造營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주경미,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미술사논단』34, 한국미술연구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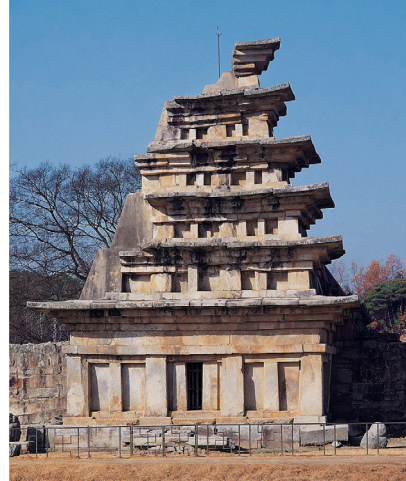
<국외>

- 藤島亥治郎, 『慶州お中心とせる 新羅時代 變形三層石塔,五層石塔及び特殊型石塔』, 『建築雜誌』579, 1933.
- 關野貞, 『慶州における新羅時代の遺跡』,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2005.

도판



도 1. 경주 분황사 석탑, 신라 634년,
現高9.3m.



도 2.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639년,
現高14.24m.



도 3. 산치 제1탑과 토리나, 인도 기원전
3세기~기원전 1세기.



도 4. 경주 황룡사지 중문지의 금강역사상
대석의 모습.



도 5. 경주 분황사 동방폐탑지 금강역사상,
7세기 후기~말기.



도 6. 경주 석장사지 탑상문전, 7세기
후기~말기.



도 7. 경주 석장사지 발견 금강역사상 틀편, 7세기 후기~말기.



도 8.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지 기반부에 삽입된 신장상전편, 통일신라 679년.



도 9.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통일신라 682년, 高13.44m.



도 10. 경주 傳담엄사지 석탑재, 8세기 후기.



도 11.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現高5.5m.



도 12.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통일신라 9세기 후기~말기, 現高3.6m.



도 13.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現高5m.



도 14. 경주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통일신라 8세기 후기, 現高9.1m.



도 15-1. 경주 장항리사지 서탑의 금강역사 부조상.



도 15-2. 경주 장항리사지 동탑의 금강역사 부조상.



도 16. 울산 간월사지 남삼층석탑,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現高5.09m.



도 17-1. 울산 간월사지 북탑의 금강역사 부조상.



도 17-2. 울산 간월사지 남탑의 금강역사 부조상.



도 18. 경주 만호봉사지 석탑재,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국립경주 박물관 소장.



도 19. 경주 읍성 동문터 발견 탑신석, 통일신라 8세기 후반.



도 20.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現高5m.



도 21. 안동 조탑동 오층전탑, 통일신라, 8세기 후기 이후, 現高8.65m.
(사진 : 박경식, 『KOREAN Art Book 탑파』, 예경, 2001, 71쪽 전제)



도 22. 안동 동부동 오층전탑,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現高8.35m. (사진 : 천득염, 이용관, 『전탑』, 대원사, 2002, 48쪽 전제)



도 23.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9세기 후기~9세기 말기, 現高3.8m.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of Sila Buddhist Pagodas and the pagoda reliefs of Vajrapani

Kim, Ji-Hyun

This paper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pagoda relief of Vajrapani, which is sculptured on Sila Buddhist pagodas, in the form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 Buddhist pagoda. From among existing Buddhist pagoda reliefs, the Images of Vajrapani is an icon manufactured in the earliest period.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four-sided altar of the first body of the Bunhwangsa(Bunhwangsa temple) stone pagoda created in 634, a total of eight the Images of Vajrapanis are placed in pairs. This pagoda is a masonry stone pagoda created by brick-shaped piling stone materials; thus, its appearance is similar to a brick pagoda. Also, although it is a stone pagoda, it may be a Buddhist pagoda of the brick pagoda group. The Bunhwangsa stone pagoda has an altar and an actual stone gate. Accordingly, if an icon is sculptured, the Images of Vajrapani, which played the role of a doorkeeper among various statues, may be the most appropriate; however, it is too natural and plain to conclude that the Images of Vajrapani was placed simply in the role of a doorkeeper on the relief of the stone pagoda at Bunhwangsa, which was established as a monumental Buddhist temple after Queen Seondeok rose to the throne.

Sila, which adopted Buddhism as the official religion the latest among three kingdoms, highlighted consistently the direct relationship with India, the birthplace of Buddhism, along with the endowment of an image of Sila as a Buddhist land. The high point may be a factor that the name of the father of Queen Seondeok can be compared with Baekjeong, her mother's name can be compared with Mayaro, and Queen Seondeok can be compared with Gotama Siddhartha. In other words, Sila under the rule

of Queen Seondeok becomes a nation of Buddha. It may not be a coincidence that there appears an affinity between the stone pagoda of a Buddhist templ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coronation of Queen Seondeok with such symbolism and an Indian stupa. A masonry stone pagoda, which requires more effort and financial resources than a brick pagoda even though it can be established as a brick pagoda, may be thought of in the continued context of working on creating legitimacy which demonstrates that Sila is a Buddhist land as the Buddhist pagoda in awareness of the Indian stupa. It cannot be denied that a brick pagoda and the sculpture style of the times in China had a direct effect on the type of the Bunhwangsa stone pagoda and the Images of Vajrapani, the symbolism of an Indian stupa, and the emphasis on the subsequent legitimacy also cannot be excluded. Through this, the altar of the Bunhwangsa stone pagoda and the Images of Vajrapani can be connected to the formation of a stupa that borders the Buddhist pagoda on which the sarira is enshrined and the remaining space.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indirectly that the Bunhwangsa stone pagoda had the character of an early Buddhist stone pagoda, which was revered as a symbol of sarira faith.

Beginning in the United Sila period, there appears newly a general type stone pagoda of the regular styl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Gameunsaji stone pagoda. Provided that the general type stone pagoda of the regular style is a new type of Buddhist pagoda, the brick pagoda, wooden pagoda, and masonry stone pagoda before the United Sila period may be considered to be old fashioned Buddhist pagodas. Many more Images of Vajrapani reliefs were created in the old fashioned Buddhist pagodas compared with the new type of Buddhist pagoda.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structural change of a general type stone pagoda of the regular style that appears after the United Sila period. That is, as the size of the first body becomes smaller than for previous Buddhist pagodas, there is a lack of space for sculpturing. This caused a formative disharmony with the Images of Vajrapani. Also, the omission of an altar and the replacement of this with a door plate along with the absence of an internal

space provide a fundamental reason why the Images of Vajrapani, which played the role of a doorkeeper at the first body later, did not have to be established. This is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Images of Vajrapani was created in the Buddhist pagoda in the brick pagoda group, and disproves that the Images of Vajrapani is a relief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Buddhist pagoda. Furthermore, the Images of Vajrapani exhibits a regional characteristic which is confirmed in the time area and Andong, where brick pagodas are well preserved, along with time, which was barely sculptured in Buddhist pagodas after the early 9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 Images of Vajrapani, which was prepared as a pagoda relief, is a relief that appeared in the form of the early Buddhist pagoda. The early Buddhist pagoda is directly related to regional limitation, namely to the Gyeongju area, which showed rapid acceptance of Buddhism, and time, which does not appear after the early 9th century. Along with the prevalent faith of the times and scriptural idols, the expansion of the 9th century brick pagoda type stone pagoda nationwide brought about the result that the Images of Vajrapani was abandoned as a relief.

Key Words : the Images of Vajrapani, pagoda reliefs, Bunhwangsa, Queen Seondeok, Buddhist pagoda, brick pagoda, stone pagoda, stupa, Sila, United Sila